

東歐諸國의 經濟計劃과 貿易

金世源

(서울大 社會大 教授)

- | | | | |
|------------------|-------------|--|--|
| <차례> | | | |
| 1. 經濟計劃의 遂行과 問題點 | 3) 貿易政策의 수단 | | |
| 1) 소련 | 4) 貿易의 遂行 | | |
| 2) 東歐諸國 | 3. 貿易構造 | | |
| 2. 對外經濟政策 및 貿易政策 | 1) 東歐諸國 | | |
| 1) 貿易의 취지 | 2) 소련 | | |
| 2) 對外經濟政策의 發展 | 4. 맷는 말 | | |

本稿에서는 社會主義諸國의 經濟計劃과 貿易의 遂行에 카니즘을 中心으로 살피고자 한다. 特定問題에 대한 分析的인 接近보다는 一般的인 考察에 局限하였으며 對象地域은 편의상 소련과 東歐諸國으로 限定하였다.

우선 經濟計劃의 遂行과 問題點을 살핀 후 對外經濟政策 및 貿易政策 그리고 貿易構造의 순서로 살피고자 한다.

1. 經濟計劃의 遂行과 問題點

市場經濟體制下에서는 原則的으로 價格(price)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依하여 資源配分(resources allocation)이 이루어지나 全體主義 經濟體制下에서 市場 및 價格 등을 代替하는 수단은 強力한 中央集權의 經濟計劃이다. 中央經濟計劃이라는 「完全히 보이는 손」(perfectly visible hand)에 依하여 一國內 諸經濟問題가 처리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라밋」型의 體系的인 機構의 組織이 心要한데 最上部에는 產出과 生產 및 技術에 關한 命令을 指示하는 최고기관(例로 소련의 Gosplan)과 最下部에는 이와 같은 명령을 집행하는 生產組織이 存在한다.

一般的으로 經濟計劃當局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있어서 最適混合(optimal mix)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다음 세 가지 形態의 情報가 必要하다(Pickersgill, 1974:208; Zinam, 1969:19이 하).

- 1) 一國經濟의 物的 生產能力(賦存 勞動, 資本 및 資源 등을 고려하여);
- 2) 各商品의 生産함수(一定商品 生產을 위한 投入係數 또는 投入間 代替性 등);
- 3) 效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產出間 代替에 대한 消費者의 選好함수.

以上의 情報를 정확히 保有하고 있다면 最適 經濟計劃이 될 수 있으며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同一한 效果를 가질 수 있으나 實제로 이러한 全能의 政府, 計劃遂行의 能力 또는 下部機關의 充實한 執行을 期待할 수는 없다.

한 예로 經濟計劃의 수립에 있어서 社會主義諸國이 흔히 使用하는 方法으로서 前年 生산실적을 기준으로 一定量 目標를 설정하는 「material balance」技法과 最終 產出 目標를 定하는 「iterative method」가 있으나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短點이 지적될 수 있다.

- 1) 機會費用(opportunity cost) 概念이 一般的으로 無視되므로 生產要素의 效率的 利用이 可能치 않고,
- 2) 새로운 技術利用 可能性 및 生產要素間 代替可能性이 거의 고려되지 않으며,
- 3) 社會福祉에 대한 純貢獻이 아니라 實物概念(physical terms)을 기준으로 하는 고로 消費的인 生產의 우려가 있고,
- 4) 經濟計劃 當局과 執行機關間 意思傳達의 不充分으로 因한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우선 정태적인 效率性面에서 計劃經濟의 가장 큰 弱點은 資源配分의 非效率性(inefficiency)에 있다.

社會主義諸國은 勞動에 대한 완전고용을 利點으로 들어 왔으나 完全雇傭은 資源 및 資本 등을 역시 그 對象으로 한다는 점에서 體制의 弱點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例로 소련 經濟에 있어서 資本의 低使用(under-utilization)이 흔히 批判되고 있는 데 한때 同國內 企業施設의 20~30%가 源資材나 部品의 不足으로 遊休狀態에 있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非效率的인 資源의 使用 및 計劃當局者로 하여금 最適의 資源配分을 實現할 수 있는 合理的인 指針의 缺如 등은 結局 同一한 與件에서 市場經濟에 比하여 低水準의 產出을 가져온다(Thornton, 1971:545이하).

後述하는 바와 같이 計劃經濟下에서의 價格은 當局에 依하여 임의적으로

決定되므로 生產要素의 相對的 희소성을 測定케 하는 指針이 되지 못하며 또 生產에 있어서 限界變形率 및 消費에 있어서 限界代替率을 반영하지도 못한다.

다음 動態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初期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은 勞動과 資本의 最大限 動員을 通하여 총체적으로 50年代까지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왔다. 높은 資本蓄積率과 勞動의 參與率에 依한 外延的 成長政策에 크게 依存하여 왔으며 勞動의 生產性增加率에 있어서도 西方諸國에 比할 때 상위권에 屬하였다. 또 東獨이나 「체코」를 除外한 大部分의 東歐諸國이 工業化 初期에 있었으므로 중공업 우선의 不均衡 成長戰略이 前後方 聯關效果를 加速시켰던 것도 事實이다(참조, Kaser, 1968).

그러나 이러한 急成長은 50年代末에 이르러 限界에 達하였는데 國別로 차이는 있으나 大部分 東歐諸國內 資本-產出系數의 上昇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資本의 限界生產性 下落에서 나타났다(예, Thornton, 1970: 863이하; Kaplan, 1968: 293이하). 이와 함께 數個의 戰略產業(重工業部門)에 대한 集中的인 投資는 기타 低優位部門 產業(例로 農業 및 消費財 部門)에 있어서 供給隘路를 招來함으로써 成長을 저해하는 要因으로 登場하였다.

이에 따라 60年代初 以後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은 經濟改革을 추진하였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內容은 1) 中央計劃當局과 企業經營者間 權限과 責任의 分散; 2) 利潤 概念의 擴大 및 3) 價格의 신축성 擴大로 要約된다(예, Bachurin, 1969:11-25; Shaffer, 1970; Gamarnikow, 1968; Ljubo, 1969).

그러나 市場經濟의 利點을 도입한 이러한 改革은 計劃經濟體制 自體가 갖는 구조적인 硬直性으로 因하여 所期의 效果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分配面에서 計劃經濟는 理論上 市場經濟에 比하여 長點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成長의 差異에 따르는 相異한 體制間 福祉水準의 절대적인 격차 또는 市場經濟內 多樣한 社會福祉政策의 도입 등은 이러한 長點의 限界를 말하여 준다.

1) 소 련

소련은 그간 經濟內 努力되어 온 구조적인 成長저해요인을 除去함으로써 生產性 增大와 같은 보다 集約的 成長(intensive growth)을 추구하기 위하여

第10次 5個年計劃(1976~80年)에서는 前期(1971~75年)의 실적에 比하여 거의 全部門에 걸쳐 計劃目標를 낮게 策定하였다. 그러나 同期間 실적을 살펴면 國民所得(支出), 工業生產, 投資 및 勞動生產性 등의 年平均 增加率은 각각 4%, 5%, 4% 및 3.5% 内外로서 目標值에도 未達하였으며 特히 1979~80년의 경우 현저하다. 工業生產에 局限하더라도 80년에 이르러 生產目標가當初計劃에 依한 目標值로부터 크게 下向調整되었으나 天然「가스」와 電力만이 이를 達成하였을 뿐, 그 以外 原油, 石炭, 鋼材, 化學肥料 및 「시멘트」등 重要 戰略產業은 극히 低調를 면치 못하였으며 農業生產 역시 비슷한 實情이다. 단지 對外貿易만이 年平均 12% 内外의 擴大率을 나타냄으로서 同期間 目標率의 2倍를 上廻하였다.

이와 같이 經濟計劃이豫定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經濟發展이 低調하였던 이유는 黨中央委員會에서 採擇된 第11次 5個年計劃(1981~85年)의 基本方向 草案에서도 示唆되었듯이 綜合的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要因에 기인한다(小川和男, 1981. 3. 3; 1981. 3. 10; 1981. 3. 17).

- ① 集約的 發展戰略에로의 轉換에 따르는 產業構造의 개편;
- ② 一連의 改革(例로 價格體系 및 企業의 裁量權擴大 등)에 따르는 適應;
- ③ 投資의 低調 및 勞動力不足;
- ④ 原・燃料를 비롯한 資源開發費用의 上昇;
- ⑤ 農業生產의 不振 및 不安定;
- ⑥ 特定部門(例로 輸送 및 消費財 產業)의 供給隘路.

한편 第11次 計劃에 依한 重要目標는 〈表 1〉과 같은데前述한 여러 否定的要因의 除去와 向後 構造的인 轉換의 心要性이 고려되어 前期計劃에 比하여相當히 實現的으로 設定된 感을 주고 있다. 몇 가지 特징을 든다면 우선 消費財 및 農業生產이 극히 強調되고 있다는 點이다. 이제껏 重工業優先政策의 추구가 가져 온 限界를 말하여 주며 이 兩部門에서의 원활한 供給確保가 뒷받침되지 않는 限 지속적인 經濟擴張이 困難할 것으로 보인다. 第11次 計劃의 추진과 함께 輕工業과 食品工業部門에서의 品質改善을 비롯한 質的革新을 위한 技術開發이 試圖되고 있다.

이는 輸送部門에서도 同一한데 同期間中 油田開發과 關聯된 4,000km 以上的 철도 新設, 複線化 및 電化 등 의 重要적인 計劃目標가 열거되고 있다.

둘째, 向後 소련의 經濟發展이 生產性의 提高와 같은 보다 集約的 成長戰

〈表 1〉 第10次 및 第11次 經濟計劃間 對比 (단위 : 增加率, %)

	第10次計劃(1976~80) ①		第11次計劃(1981~85) ②		1981年③ (年度計劃)
	5 年 間	年 平 均	5 年 間	年 平 均	
1. 國 民 소 득	24~28	4.4~5.0	18~20	3.4~3.7	3.4
2. 公 业 총 生 산 고	35~39	6.2~6.8	26~28	4.7~5.0	4.1
(1) 생 산 재	38~42	6.7~7.3	26~28	4.7~5.0	4.1
(2) 소 비 재	30~32	5.4~5.7	27~29	4.9~5.2	4.2
3. 농 业 총 生 산 고*	14~17	—	12~14	—	7.5
4. 公 业 의 노동 生 산 성	30~34	5.4~6.0	23~25	4.2~4.5	3.6
5. 1 인 당 실 질 소 득	20~22	3.7~4.1	16~18	3.0~3.4	2.9
6. 소 매 상 품 매 상 고	27~29	4.9~5.2	22~25	4.1~4.5	4.9

資料 : ① *Pravda*, 1976. 3. 7. ② *Pravda*, 1980. 12. 2. ③ *Pravda*, 1980. 10. 23.

* 以前 5個年計劃期間中 增加率 合計對比

略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는 點이다. 經濟計劃의 實績에 比하여 높게 책정된 勞動生產性의 向上, 投資의 效率性 提高, 그리고 原·燃料의 合理的 利用 및 節約 등이 이를 反映하고 있다.

셋째 極東을 中心으로 한 東部「시베리아」開發政策이 활발히 推進되는 것과 병행하여 「에너지」政策이 极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체적으로 原油의 消費節約 및 利用合理化를 內容으로 하는 原油保存政策이 강조되는 反面, 原子力의 利用擴大, 天然「가스」의 역할증대 그리고 石炭增產과 같은 「에너지」多邊化 政策이 추구되고 있다.

끌으로,前述한 바와 같이 市場經濟의 利點을 導入한 경제개혁의 推進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데 經濟管理制度의 改善 및 價格體系의 改善 등을 그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第10次 計劃期間中 計劃目標의 2倍를 上廻하여 온 對外貿易의 擴大는 80代年에도 지속될 展望이다.

2) 東歐諸國

東歐諸國은 自給體制의 구축을 前提로 重工業優先의 政策을 실시하여 왔으며, 特히 60年代에 들어서서 COMECON會員國을 中心으로 한 社會主義諸國間 國際分業의 심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資源波動 및 國際不況의 여파를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表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70년대 후반 經濟成長 및 工業生產의 實績은 當初 5個年 計劃에 依한 目標值에 크게 未達

〈表 2〉 東歐諸國의 成長率

(단위 %)

	1976~80 計 劃	1976~80 實 績	1980 計 劃	1980 實 績	1981 計 劃	1981~85 實 績
國 民 所 得						
불 가 리 아	7.7	6.7	5.7	5.7	5.1	—
체 코	4.9~5.2	3.7	3.7	3.0	2.8	3.0
東 獨	5.1	4.2	4.8	4.2	5.0	—
헝 가 리	5.4~5.7	3.6	3.0~3.5	1.0	2.0~2.5	14~17*
폴 란 드	7.0~7.3	2.0	1.4~1.8	-2.0	3.0~4.0	—
루 마 니 아	11.0	8.0	8.8	8.8	7.0	6.7~7.4
工 業 生 產						
불 가 리 아	9.2	7.6	6.3	5.0	5.6	—
체 코	5.9~6.0	4.6	4.0	3.2	3.5	4.0
東 獨	6.0	5.2	4.7	4.7	5.8	—
헝 가 리	5.9~6.2	3.9	3.5~4.0	0.0	3.0~3.5	19~22*
폴 란 드	8.2~8.5	4.0	1.0~1.3	-3.0	2.0~4.0	—
루 마 니 아	11.5	10.6	11.4	11.3	8.1	9.0~10.0

資料：世界經濟研究會，『世界經濟評論』，1981. 1月號

Business Eastern Europe 7, Nov. 및 5, Dec. 1980

*: 5年間目標

하였다. 「폴란드」의 경우 이에 國內 政治·社會의 不安이 추가되어 80年度에는 負의 成長까지를 기록한 바 있다.

自由世界와 마찬가지로 東歐諸國 역시 經濟擴張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의 하나는 「에너지」需給上의 차질로부터 招來되었다. 國際原油波動에도 不拘하고 소련의 原油는 계속 供給되어 왔으나 그 후 價格引上이나 供給制限措置는 東歐諸國으로 하여금 國際收支의 악화 및 重工業 投資計劃의 不振을 면치 못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2年間에 걸친 農業部門에서의 흥작， 生產性 提高를 위한 技術開發의 低調 및 「인플레」의 加速 등은 經濟成長을 저해하는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大部分의 東歐諸國은 최근까지 5個年 經濟計劃(1981~85)에 관한 具體的 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國際經濟與件의 추이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目標值를 再調整하려는 意圖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로 미루어 (〈表 2〉 參照)多少 下向調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으로 볼 때 5個年 計劃期間中 「에너지」節約를 위한 技術開發， 投資의 效率性 提高 및 產業構造의 再編成에 크게 重點이 두어질 展望이다.

東歐諸國中 先進經濟圈에 屬한다고 할 수 있는 東獨과 「체코」에 있어서 機械 및 化學工業部門의 「에너지」를 비롯한 所要 資源節約을 위한 生產性 向上이나 質的 改善을 시도하려는 努力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다.

<表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1976~80年間 高速成長을 실현하여 왔는데 이러한 추세가 多少 완화되기는 하겠으나 앞으로도 持續될 展望이다. 大部分 現在 遂行中인 工業 部門의 「프로젝트」에 投資가 集中的으로 行해질 展望이며 그 以外 「에너지」節約이나 原資材 集約部門에도 重點이 두어질 計劃이다.

한편 國內 政治不安에 더하여 國際收支의 甚한 壓力에 직면하고 있는 「폴란드」는 輸入代替產業의 育成과 함께 석탄을 비롯한 特化部門의 輸出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反面 「헝가리」 역시 國際收支의 改善을 중요 경제목표로 設定하고 있으나 地域開發 및 칠강공업과 電子工業部門의 擴充을 위하여는 對西方 輸入增加가 불가피할 것 같다.

2. 對外經濟政策 및 貿易政策*

1) 貿易의 취지

市場經濟體制의 경우와 比較할 때 東歐를 비롯한 社會主義諸國의 對外貿易은 전혀 다른 취지를 갖고 있다.

중요한 몇 가지를 든다면 우선 社會主義諸國에 있어서 貿易은 社會全體의 行為로서 經濟計劃의 一部로 포함된다는 점을 指摘할 수 있다. 따라서 貿易은 國家獨占下에 있으며 經濟計劃에 依하여 設定된 諸目標를 수행하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하다. 즉 國家計劃委員會(State Planning Committee)는 경제 계획의 일부로서 貿易計劃을 수립하고 對外貿易省과 산하 部門別 貿易公團(Foreign Trade Corporations)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케 하며 해당 企業들은具體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實行하는 임무를 갖는다.

다음, 市場經濟體制와는 달리 貿易의 主題旨은 經濟計劃의 實現에 必要한 財貨 및 技術의 輸入에 있으며 輸出은 단순히 輸入을 可能케 하는 外貨獲得

* 本章은 주로 다음의 문헌을 參考로 하여 作成하였음 : Holzman, 1974, 1976; Starr, 1974; Wilczynski, 1969, 1972, 1973; Brown and Marer, 1973; Quigley, 1974; Vajda and Simai, 1971.

의 方法에 지나지 않는다. 「코메콘」內 社會主義的 分業의 促進을 비롯하여 최근 東西貿易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이론상 「스탈린」식의 一國 社會主義建設 路線에 따라 무역의 궁극적인 目的是 逆說의이기는 하나 自給自足體制(Autarky)의 구축으로써 무역의 필요를 축소시키자는 데 있다. 2次大戰 以後 大部分의 社會主義諸國이 重工業 우선의 不均衡 成長政策을追求하여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市場經濟體制下에서는 무역 상사가 利潤動機에 依하여 去來를 수행하는 데 反하여 社會主義諸國內 企業은 比較優位를 통하여 利得을 취할 수 있는 何等의 誘因策을 발견할 수 없다.

끌으로, 이러한 理由 때문에 그리고 實제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外貨不足이라는 이유가 追加되어 대부분의 社會主義諸國은 西方과의 去來에 있어서 以 國間 均衡原則을 持續하고 있다. 「COMECON諸國」間에는 國際經濟協力銀行(Bank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一名 COMECON 銀行)을 통하여 多角的 결제가 행해지고 있으나 西方諸國과는 原則적으로 雙務主義가 적용되는데 이의 수행을 위하여 大部分의 경우 二國間 貿易協定이 체결된다. 그러나 나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雙務主義가 東歐諸國의 國際收支不均衡問題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2) 對外經濟政策의 發展

市場經濟體制下에서는 貿易理論이 D. Ricardo의 比較生產費說(Theory of Comparative Costs) 擡頭 以來 經濟理論中 가장 發展한 分野의 하나인데 反하여 計劃經濟諸國의 貿易에 관한 이론은 50年代 中盤 以後 비로소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資本主義下에서의 貿易을 차취의 延長으로 간주하여 상당히 비판적으로 취급하였으며 풍부한 國내 자원의 기반 위에 開發戰略을 추구할 수 있었던 소련의 경우 「스탈린」時代까지 貿易의 必要性을 거의 인정치 않았다.

그러나 50年代에 들어서서 共存原則의 登場, 그리고 經濟的인 側面에서는 經濟開發의 遂行에 소요되는 資本, 施設財 및 技術導入 必要性의 점증과 함께 貿易理論도 활기를 띠기始作하였다.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이 創設된 것도 이 시기이다.

특히 60年代에 이르러 社會主義諸國內 經濟的 必要는 물론 EEC의 設立에 依한 西歐諸國間 經濟統合의 推進 및 國際貿易의 自由化 追求에 따른 西方陣營內 水平分業의 심화 등에 자극을 받아 東西貿易은 급속히 신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資本, 金融, 技術協力도 병행,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計劃經濟下 貿易理論도 이를 뒷받침하여 발전하였는데,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側面에서 점차肯定的인 입장이 취해지고 있다.

첫째, 무역이 경제계획하에서 社會主義 開發의 수행을 促進시킬 수 있다 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例로 國內生產費보다 싸게 輸入할 수 있다면 資源의 저축을 통하여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西方內 比較優位에 입각하여 分業을 수행한다는 立場과는 相異하며, 去來國間 絶對生產費의 差異가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後進國 開發에 있어서 對外貿易이 工業化를 촉진시키는 姦인으로 作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開發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資本·施設財 및 技術의 導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세째, 1960年을 전후로 하여 大部分의 社會主義諸國이 外換價值에 對한 国內생산비 비교를 내용으로 하는 貿易의 效率性(Foreign Trade Efficiency) 指數를 使用하여 外國과의 去來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첫번째의 基準과도 연관을 갖는 내용인데 計劃經濟에 있어서 價格 및 外換率의 決定과 같은 體制上의 差異를 감안하여 外國貿易의 效率성을 測定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몇 가지 중요한 指數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輸出의 市場效率性(Market Effectiveness of Export, mEx)

$$mEx = \frac{dP + mC}{FPd}$$

但 : dP : 國內市場價格(국내 시장에서의 구입비용)

mC : 「마켓팅」費用(mark-up 포함)

FPd : 國內價格으로 表示된 輸出價格

② 輸入의 外換效率性 指數(Index of the Foreign-Exchange Effectiveness of Import, M)

$$M = \frac{dwP - mC}{FPde}$$

但 : dwP : 國內 都賣價格

mC : 國내 「마켓팅」비용

$FPde$: 輸入商品의 平均外換價格

③ 外國貿易生產의 資本集約度 指數(Index of the Capital Intensity of Foreign-Trade Production, E , 國內投資計劃에 支出되는 資本費用과 이를 외국으로부터 輸入했을 경우 所要費用間 比較)

$$E = \frac{Id}{\Sigma Af - \Sigma Sf}$$

但, Id : 國內 投資支出

ΣAf : 國內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外換節約額

ΣSf : 당해년도 事業(project)에 소모되는 자원의 外換價值

이와 같이 60년대초 이후 대부분의 東歐諸國內 自給體制(autarky)에 對한反省이 일기 시작하였고 貿易에 대한 관심의 高潮에 따라 COMECON 會員國間 分業의 推進은 물론 東西貿易의 급속한 확대가 시도되어 왔다. 이론적 인 측면에서도 종전까지의 硬直的인 立場이 크게 완화되어 市場經濟體制下에서의 무역을 통한 利益에 接近하는 水準까지 發展하였다.

그러나 計劃經濟下에서는 이에 관한 動態的 側面이 輕視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價格 및 外換 등 命令經濟體制 自體로부터 연유하는 人爲的인 操作性으로 인하여 무역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 저해되고 있다.

3) 貿易政策의 수단

(1) 價格構造

市場經濟에 있어서는 價格이 原則的으로 費用-選好를 反映하는 개념으로서 市場의 需給에 依하여 決定되며 이러한 原理는 國際貿易에 있어서도 同一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價格이 政府의 무역정책수단과 無關한데 反하여 社會主義經濟에 있어서는 價格의 決定自體가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相反되는 兩體制의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經濟理論에 따르면 한 商品의 價格은 이를 生產하기 위하여 投入된 社會的으로 必要한 勞動에 依하여 決定되며 기타 地貸, 利子 및 資本費用 등은 이에서 除外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實제로 價格은 政府가 추구하는 政策目標(例로 社會「그룹」간 國民소득의 配分, 저축수준 및 경제계획의 수행 등)에 따라 設定되고 있다.

初期 價格은 극히 中央集權의으로 決定되었는데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와 國家價格計劃委員會(State Price Planning Commission)가 이를

전적으로 擔當하였다.

價格體制를 살피면 二重構造로서 生產企業들에게 支拂되는 生產者 價格과 小賣商에서 一般에게 販賣될 때 使用되는 小賣價格이 있으며 그 이외 國제 무역에 있어서는 各去來 때마다 별도로 價格이 簽定된다. 따라서 國際去來價格은 市場經濟의 경우 國내 시장가격을反映하나, 社會主義諸國에서는 國가에 의해 一方의으로 決定되므로 「dumping」形態의 수출도 용이하며 國際市場에서 종종 물의를 빚는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60年代末부터 70年代初에 걸쳐 東歐諸國內 價格構造 및 政策의 變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우선 生產者 價格을 현실에 맞게 좀더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음 國家價格計劃委員會가 배타적으로 행하던 價格決定權을 分散하고 市場의 機能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의 동향은 硬直的인 計劃經濟體制를 指向하고 있는 소련, 동독, 「풀란드」, 「루마니아」와 보다 市場指向의인 國家라 할 수 있는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및 「유고」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價格決定權의 分散만 시도하고 있으나 後者의 경우 市場機能의 一部導入까지를 추진하고 있다.

70年代初 現在, 價格決定權은 中央當局 以外에도 地方價格局(Regional Price Office)에 의하여 크게 분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一定部類에 속하는 價格은 產業別 協會, 協同組合 理事會 또는 去來當事者들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社會主義諸國內 價格은 當局에 의하여 政策的, 任意的으로 設定되어 社會的 費用을反映치 못하며 특히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 外換率 政策

최근 대부분의 西方諸國이 自由變動換率制度를 採擇하고 있기는 하나 中央通貨當局의 一定한 介入幅을前提로 한다는 점에서 政府의 政策 수단에 포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換率은 外換市場에서 需給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社會主義諸國內에서는 換率決定理論은 존재하지 않으며 國內價格水準의 变동과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 構成이나 方向의 決定과도 무관하다. 自國通貨의 對金價值가一般的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交換性

(convertibility)을 갖지 못하여 決濟는 중요 西方通貨로 행해진다.

대부분 거래에 따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複數換率制(Multiple Exchange Rate System)을 실시하고 있는데 一般的으로 自國通貨를 高評價하는 低換率政策을 採擇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體制의 성격上 무역에 있어서의 중점은 輸入에 두어지므로 저환율정책은 일종의 輸入補助를 通한 貯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對外的으로 國家威信을 維持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도 作用한다고 보겠다.

이와 같이 볼 때 社會主義諸國內에서 換率은 한편으로는 經濟計劃當局에 의한 事前(ex ante) 巨視經濟的 決定,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際時勢와 유리, 왜곡된 國內價格構造 및 不均衡換率下에서 貿易의 機能的側面을 조화시키기 위한 事後的(ex post) 補完措置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外國貿易의 效率性(Foreign Trade Efficiency)을 계산하기 위하여 公式換率以外에도 自國通貨와 外國通貨間 相對價值係數 그리고 限界換率을 주기적으로 산출함으로써 貿易의 최적방향이나 國제수지의 均衡을 기하고 있다.

(3) 關稅政策

이미 살핀 바와 같이 國家計劃, 獨占貿易이라는 特性 이외에도 歪曲된 價格 및 換率決定 등으로 인하여 關稅는 實質적으로 큰 의의를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行政費用의 節約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作用하여 40~50년대 초까지 關稅政策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후 西方과의 무역이 추진됨에 따라 非商業輸入(non-commercial imports)에만 關稅의 適用을 한정하여 왔으나 50년대 말에 이르러 이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正常的인 關稅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政策變化는 東西貿易의 增加에 따라 財政收入의 增加도 고려되기는 하였으나 이보다는 對西方貿易協商의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폴란드」 및 「체코」 등 일부 COM-ECON 諸國이 GATT에 가입함으로써 多者協商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關稅政策을 채택할 必要를 느끼게 되었다.

이 외에도 「코메콘」의 設立에 따라 二重關稅制度의 導入을 통하여 域內 특혜를 供與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貿易公團의 利潤을 확보하여 「인센티브」 制를 확대하려는 의도도 크게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東歐諸國의 關稅率이 낮은데 反하여 中共은 极히 高率의 관

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4) 非關稅政策

非關稅政策으로서 가장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政策手段은 許可制 (Licence) 및 「쿼터」制이다. 이러한 數量 制限은 社會主義諸國이 國家獨占 形態의 計劃貿易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貿易 自體가 경제계획에 포함되는 데 따르는 당연한 결론이다.

그 이의 政策手段으로서 行政樣式, 輸出補助, 行政命令 및 經濟協力(특히 후진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등을 들 수 있으나 西方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으며 또 전술한 수단들에 비하여 중요한 位置에 있지도 않다.

4) 貿易의 達行

(1) COMECON諸國

① 域內去來

COMECON諸國間 貿易은 社會主義的 經濟統合의 原則에 따라 多邊主義 (multilateralism)에 입각하여 수행되고 있다.

舊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經濟協力機構)의 탄생에 자극을 받아 49年 소련을 위시한 東歐內 經濟協力を 目的으로 COMECON이 形成되었다. 당초 會員國 經濟의 效率的 發展 및 國家間 經濟隔差의 해소를 취지로 하여 相互 貿易計劃의 調整을 통하여 去來의 확대를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급속한 重工業中心의 經濟發展을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貿易依存度가 심화되고 또 分業의 追求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50年代末 以後 社會主義 國際分業이 強調되기 始作하였고 具體的으로는 經濟計劃의 調整, 生產의 國際的 專門化, 共同「프로젝트」의 추진 그리고 金融, 科學 및 技術協力의 增進 등으로 그 事業對象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相互 決濟上의 편의제공의 必要를 切感하게 되었다. 1963年 設立된 國際經濟協力銀行(Bank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一名 COMECON 銀行)은 종전까지 二國間 決濟에 의존하던 域內貿易을 對替「루블(rouble)」에 의한 多國間 決濟로 전환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 후 회원국간 投資計劃을 지원하고 나아가 共同「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目的으로 1970年 國際投資銀行(Bank for International Investment)이 發足하였으며 1971年 社會主義的 經濟統合을 위한 綜合計劃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東歐諸國間 이러한 經濟機構의 설립을 통한 生產의 專門化 및 協業化가 원만한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EEC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協力만을 취지로 하는 COMECON 자체의 기구적인 속성에 더하여 각국의 經濟困難 및 전술한 經濟體制上의 制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 對西方貿易

東歐諸國은 對西方 貿易에 업격한 雙務主義(bilateralism)을 적용하며 대부분의 경우 貿易協定의 체결에 따라 輸出入이 행해진다. 貿易協定은 期間이 보통 2~6년이며 貿易額, 去來品目, 關稅, 換率 및 決濟方法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對西方貿易에 따르는 決濟는 金이나 交換性 있는 西方通貨에 의하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 對西方負債의 增加로 인하여 外換不足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特記할 것은 去來對象地域에 따라 相異한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對西方先進國 貿易은 清算計定協定의 체결을 併行시키는 것이 상례인데 이는 대부분의 東歐諸國이 入超의 立場에 있으므로 이러한 類의 協力은 일종의 借款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東歐諸國은 對後進國 去來에 있어서는 輸出入均衡 原則을 강요함으로써 對先進國의 경우와는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

3. 貿易構造

1) 東歐諸國

전술한 바와 같이 東歐諸國은 農業生產의 不振, 投資增加率의 鈍化 및 消費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최근 低速成長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資源波動과 잊달은 國際不況 以後 成長의 低調現象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經濟困難을 反映하여 65年 以後 深化되어 온 貿易依存度는 1976~78年間 大部分의 諸國內에서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表 3 참조).

총체적으로 볼 때 貿易依存度를 比較하면 현재 28%를 다소 上廻함으로써 EC諸國의 경우 平均 50% 內外인데 비하여 낮은데 이는 計劃經濟의 특성에 따르는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國別로 比較한다면 「불가리아」 및

〈表 3〉 東歐諸國의 貿易依存度

〈단위 : 100萬 \$ (금액) 및 % (구성비)〉

국명	무역내용	1965	1975	1976 ¹⁾	1977 ¹⁾	1978 ¹⁾
불가리아	G N P ²⁾	6,880	19,050	21,570	24,280	27,600
	수출	1,176	4,691	5,382	6,351	7,478
	수입	1,178	5,408	5,626	6,393	7,651
	무역의존도(%)	34.2	53.0	51.1	52.5	54.8
체코	G N P	22,660	54,127	61,340	67,880	75,700
	수출	2,688	8,358	9,035	10,303	11,738
	수입	2,673	9,077	9,706	11,187	12,560
	무역의존도(%)	23.7	32.2	30.5	31.7	32.1
동독	G N P	26,091	67,476	73,880	82,310	91,800
	수출	3,070	10,088	11,361	12,024	13,267
	수입	2,810	11,290	13,196	14,334	14,527
	무역의존도(%)	22.6	34.8	33.3	32.0	30.4
헝가리	G N P	10,649	25,219	28,340	32,320	36,100
	수출	1,510	6,091	4,934	5,831	6,345
	수입	1,521	7,176	5,529	6,522	7,992
	무역의존도(%)	27.5	52.7	36.9	38.2	39.5
폴란드	G N P	28,895	82,923	112,500	125,810	138,800
	수출	2,228	10,282	11,017	12,265	13,462
	수입	2,340	12,536	13,867	14,616	15,327
	무역의존도(%)	15.8	27.5	22.1	21.3	20.7
루마니아	G N P	15,576	46,674	59,030	67,890	78,400
	수출	1,102	5,341	6,138	7,021	8,237
	수입	1,077	5,342	6,095	7,018	9,087
	무역의존도(%)	14.0	22.8	20.7	20.6	22.1
유고	G N P	—	35,274	41,574	47,317	58,010
	수출	1,092	4,072	5,254	5,659	6,491
	수입	1,288	7,679	7,367	9,634	9,987
	무역의존도(%)	—	33.3	30.3	32.4	28.4
計	G N P	—	324,743	398,234	447,807	506,410
	수출	12,866	48,921	52,741	59,049	66,186
	수입	12,887	58,526	61,386	69,704	77,086
	무역의존도(%)	—	33.1	28.6	28.8	28.3

註 : 1) GNP; 2) GNP는 經常價格基準; 3) GNP, 수출, 수입은 금액기준.

資料 : Thad P. Alton et al, "Defense Expenditures in Eastern Europe 1965~76"

in *East European Economics-Post-Helsinki*, August 25, 1977. Washington;
Business Eastern Europe 1978~1980 등

「헝가리」에 있어서는 40%~50%에 이르는 높은 依存度를 보이며 「폴란드」 및 「루마니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30% 以上에 位置하고 있다. 賦存資源의 貧弱에도 연유하겠으나 地理的 인접 및 歷史的 관계 등으로 인하여 域內는 물론 EC諸國과 같은 西方陣營과의 貿易이 活潑히 진행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同表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國別로 貿易規模面에서 큰 差異를 보인다는 점 이외에도 60年代까지 대부분 貿易黑字를 유지하여 왔으나 75年 以後例外없이 赤字로 反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幅은 構造的으로 한 층 深化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유고」 및 「폴란드」에 있어서 이러한 貿易收支의 압력은 한층 加重되고 있다.

貿易收支의 不均衡은 國際景氣의 不況 및 國內經濟困難에 따르는 輸出의 不振에도 불구하고 經濟計劃의 遂行은 國제經濟적 여건으로 미루어 오히려 輸入費用의 上昇을 가져온다는 데 起因한다. 특히 以上 7個國을 한 단위로 할 때 「에너지」自給率이 60年代 列까지 100%를 超過함으로써 輸出地域의 立場에 있었으나 그 後 점차 下落하여 78年 81.6%로 減少하였다. 「불가리아」, 「유고」 및 「헝가리」의 경우 60% 以下로서 輸入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폴란드」만이 약간 輸出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들은 대부분 原油를 蘇聯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는데 油價引上이 輸入의 急增을 초래하였음은 당연하다.

후술하거니와 지속적인 貿易收支의 逆調에 따르는 對外負債의 累積은 國別로 심각한 狀態에 있으며 이 점 한국과의 去來에 있어서도 하나의 制約으로 등장하고 있다.

東歐諸國의 輸入과 관련된 불가피한 압력은 <表 4>에 의하여도 잘 설명된다.

우선 品目別 構造를 살피면 SITC 7에 해당하는 機器類와 原油를 비롯한 鎳物類가 압도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構成比는 75년 이후 한층 확대되고 있다. 특히 機械, 設備類의 構成比가 점차 增加하여 78年에 37%를 上廻하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非食用 原料 및 食料品의 상대적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地域別 輸入構造를 보면 아직까지 東歐를 비롯한 COMECON諸國間 域內比重이 50% 以上에 이르기는 하나 各國의 經濟困難, 供給條件의 不利(특히

〈表 4〉 東歐諸國의 品目別 輸入構造 〈단위 : %〉

區 分	1965	1975	1976	1977	1978
機械, 機器	29.6	35.0	35.1	36.3	37.2
燃料, 鑛物原料, 金屬	27.6	28.2	28.3	27.7	28.5
非食用原料, 加工食品 및 原料	27.4	18.0	19.2	18.2	16.8
消費用工業製品	7.0	8.1	7.1	7.3	7.1
化學品·肥料·고무建材 및 기타	8.3	10.7	10.3	10.4	10.3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各年號 및 日本, 소련, 東歐貿易會『調查月報』, 1980. 2.

「플랜드」導入의 경우), 商品의 低質(例로 機械, 設備의 경우 西歐製品과 比較할 때), 體制上의 問題(例로 價格 및 換率體系의 歪曲) 또는 域內 通貨의 不兌換性 등으로 因하여 점차 위축되고 있다. 이는 對西方 輸入의 增加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西獨과의 去來가 압도적인데 東西獨間 貿易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東歐諸國의 社會主義圈으로 부터의 品目別 輸入構造를 살피면 機械類가 가장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며 鑛物性 燃料 및 原料別 製品의 順位를 나타냄으로써 原油와 같은 特殊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뚜렷한 水平分業의 현상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油價의 급격한 引上 以後 광물성 燃料의 輸入이 급격히 增加하여 구성비 면에서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輸出構造는 〈表 5〉와 같은데 輸入의 경우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機械·機器 및 消費用 工業製品이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 5〉 東歐諸國의 品目別 輸出構造 〈단위 : %〉

區 分	1965	1975	1976	1977	1978
機械·機器	37.9	40.5	41.3	43.0	44.3
燃料·鑛物原料·金屬	16.1	16.6	16.2	15.3	14.9
非食用原料·加工品·食料品 및 原料	21.0	15.9	16.4	15.7	14.8
消費用工業製品	16.8	17.1	16.5	16.4	16.4
文學品·肥料·고무建材 및 기타	8.2	9.8	9.6	9.4	9.5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表 4〉와 同一

COMECON諸國을 포함하는 社會主義圈에 對한 輸出로 축소하여 본다면 機械·機器類의 구성비가 56%에 달하며 이에 原料別·雜製品(SITC 6 및 SITC 8)을 追加한다면 75%를 上廻함으로써 水平分業이 점차 深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國別로 비교한다면 커다란 격차를 찾아볼 수 있다. 工業化 水準이 거의 西歐 先進國과 比較될 수 있는 東獨 및 「체코」가 SITC 6, 7 및 8類에 해당하는 機械類를 비롯한 공업제품의 수출에 特化하고 있는 반면 기타 諸國은 一次產品,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 및 標準化된 重工業 部門의 수출에 치중하고 있다.

地域別 輸出構造를 살피면 수입의 경우와는 對照的으로 아직까지 社會主義圈의 구성비가 절대적이며 70年代 以後 구성비면에서도 큰 變動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東歐諸國이 西方先進國과의 貿易去來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赤字現象과도 連結된다.

단지 東歐諸國의 對後進國 輸出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징을 든다면 특히 中東에 대한 수출이 급증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이 地域과의 貿易에 있어서 黑字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指摘할 수 있다.

또 東歐諸國은 對西方 先進國 去來와는 달리 對後進國 貿易에 있어서 南北型 現象을 보이고 있다. 즉 輸入의 80%이상이 一次產品으로 구성된 반면 總輸出額의 70% 이상이 工業製품을 포함하고 있다.

2) 소 련

東歐諸國과는 對照的으로 蘇聯은 貿易收支의 黑字를 維持하고 있다. 〈表6〉은 各年度 月平均 「루블(rouble)」의 對「달러」換率을 기초로 70年代 蘇聯의 輸出入 規模를 보여 주고 있는데 3個年을 제외하고는 出超現象이 계속되어 왔다.

蘇聯의 地域別 貿易構造는 매년 별변동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東歐諸國의 경우에 比하여 西方과의 貿易이 상대적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蘇聯이 經濟計劃의 遂行을 위하여 先進西方으로 부터 資本·施設財의 導入을 擴大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하나 COMECON 域內經濟的 補完關係의 深化를 취지로 하는 소위 社會主義的 分業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構造는 80年代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6〉 蘇聯의 輸出入規模 (단위 : 100萬 달리)

區 分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區 分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1970	12,800.1	11,731.7	1,068.4	1975	33,292.3	36,945.0	-2,812.1
1971	13,806.2	12,478.8	1,327.4	1976	37,164.7	38,104.4	-939.7
1972	15,361.2	16,054.5	-693.4	1977	45,122.7	40,813.3	4,291.4
1973	21,253.3	20,902.2	351.1	1978	52,138.3	50,514.0	1,524.3
1974	27,405.6	24,883.3	2,522.3	1979	64,684.7	57,756.8	6,927.9

註 : 루블(rouble) 表示金額을 各年度 對「달러」換率로 환산하였다.

資料 : Ministerstvo Vneshnei Torgovli SSSR, Vneshayayo Torgovlia SSSR (ezhead), Moscow; 國際經濟研究院, “소련의 對 OECD 수입시장분석과 한국의 對蘇間接輸出可能性에 관한 연구” 1980. 12. 28에서 再引用.

特記할 것은前述한 바와 같이 최근 蘇聯은 거의 經濟 全部門에 걸쳐 目標에 크게 未達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무역의 증가율은 目標值의 2배를 上廻하였다는 점이다. 第11次 計劃期間(1981~85年) 中에도 현재 推進中인 諸事業計劃으로 미루어 무역의 급속한 擴大는 불가피한 것 같다.

西方 先進諸國中 蘇聯의 重要去來對象國은 西獨, 「프랑스」, 日本 및 기타 회원국의 順位이며 後進諸國으로서는 印度, 中東 및 中南美 諸國을 들 수 있다.

한편 蘇聯의 品目別 貿易構造에 있어서 두드러진 特징 중의 하나는 그 資源賦存狀況을 反映하여 原油, 天然「가스」, 鐵礦石, 石炭, 銅, 鋅 및 「알루미늄」 등의 광물류를 大量輸出하면서도 食料品과 같은 一次產品 및 半製品

〈表 7〉 蘇聯의 品目別 輸出構造 (단위 : %)

區 分	1975	1976	1977	1978	1979
機械・設備	18.7	19.4	18.8	19.6	17.5
燃料・電力	31.4	34.3	35.1	35.6	42.2
礦石・精鑛・金屬・金屬製品・케이블・와이어	14.3	13.2	11.1	10.3	9.1
化學製品・肥料・고무	3.5	3.0	2.8	3.0	2.9
木製・同製品	5.7	5.3	5.1	4.5	4.1
섬유原料・半製品	2.9	2.9	3.2	2.5	2.0
食品・食品原料	4.8	3.0	3.1	2.2	2.6
消費用 工業製品	3.1	3.0	2.7	3.1	2.3
기 타	15.6	15.9	18.1	19.2	17.3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表 6〉과 同一

의 輸入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表 7〉에서도 볼 수 있듯이 總輸出에 對한 燃料의 구성비는 資源波動 以後 더욱 확대되었으며 주로 原資材 및 一次加工產品이 80% 以上을 차지하여 총체적으로 後進國型 무역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一部 東歐諸國이 그러하듯이 蘇聯은 二重的인 貿易構造를 갖고 있다. 즉 後進經濟는 물론 一部 COMECON 諸國과는 先進國型을 擇하며 機械·設備類 및 化學製品을 輸出하는 데가로 食料品을 비롯한 原資財·半製品을 輸入하는 반면 西方先進諸國과의 去來에 있어서는 그 反對의 立場에 있다.

〈表 8〉은 이러한 立場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데 섬유류를 비롯한 一部輕工業製品 및 機械·設備類의 對西方輸入은 80年代에도 계속 다른 品目에 비하여 급속한 擴大率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表 8〉 蘇聯의 對OECD 品目別輸入 (단위 : %)

區 分	1975	1977	區 分	1975	1977
一 次 產 物	17.5	15.7	비금속광물제품	0.2	0.6
農 産 物	16.8	14.6	生化學工業製品	67.8	69.4
水 産 物	0.2	0.3	화 학 제 품	7.8	8.9
光 産 物	0.5	0.8	금속및同製品	22.2	20.0
工 業 製 品	20.6	21.6	기 계·기 기	37.5	40.1
輕 工 業 製 品	14.7	14.9	合 計	100.0	100.0
섬유및同製品	5.7	6.1			

資料: OECD, *Trade by Commodities*, 1975 및 1977.

4. 맷 는 말

計劃經濟體制下에서 모든 對外去來는 國家主管下 計劃의 一部로 포함되어 있으며 貿易 역시 이러한 태도로 内에서 國家計劃委員會의 지시에 따라 對外貿易省, 貿易公團 및 해당업체들에 依하여 下向式으로 違行된다. 당연한結果로서 市場經濟의 경우와는 달리 貿易의 취지 그 自體는 經濟計劃이 추구하는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必要한 財貨 및 技術의 輸入에 있으며 輸出은 단순히 輸入을 可能케 하는 외화획득의 方法에 지나지 않는다.

또 計劃經濟라는 體制 自體의 屬性에 따라 商品의 가격 및 換率 등이 國家機關에 依하여 임의로 決定되어 重要한 貿易政策 手段으로 使用된다. 即 이러한 政策手段들은 國內外 市場需給과는 無關하다.

특히 50년대 후반 以後 社會主義諸國內 貿易理論이 비교적 活潑히 登場하기는 하였으나 비교우위이론 보다는 去來國間 絶對生產費의 差異를 중요한 기준으로 貿易의 效率性(Foreign Trade Efficiency)에 그 重點이 두어지고 있다. 또 經濟計劃의 궁극적인 目標가 重工業優先의 自給體制 基盤의 확립에 있으므로 貿易理論이 이러한 限界를 벗어날 수도 없다고 본다. 「코메콘」諸國間 分業의 促進을 目的으로 數次에 걸쳐 國際會議가 開催되었으나 體制 및 計劃目標와 같은 制約으로 因하여 단순히 相互 產業立地를 中心으로 한 政策의 調整에 국한할 수 밖에 없었던 理由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制約은 社會主義諸國의 對外貿易構造에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는데 先進工業諸國과는 後進國型, 그리고 後進諸國과는 先進國型을 取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先進國과의 去來에 있어서 技術, 資本 · 施設財를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一次產品 · 半製品 또는 勞動集約部門을 수출한다면 後進地域에 대하여는 주로 資本集約의 重工業製品을 供給하는 이른바 二重構造를 띠고 있다.

한편, 自給體制를 추구하는 經濟計劃의 취지와는 對照的으로 東歐諸國의 對外貿易依存度는 한층 深化되고 있으며 資源波動 以後 國際收支의 壓力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 예로 東歐 7個國의 對西方 純債務 累積總額은 1979年 末 現在 약 540여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폴란드」(172.5억 「달러」), 「유고」(130억 「달러」), 東獨(66억 「달러」) 및 「루마니아」(60억 「달러」)의 順位이다.

賦存資源의 制約 아래 重工業 中心의 경제계획을 추진하면 할수록 資本 · 施設財 및 기술 등의 部門에서 對西方工業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需要는 擴大되지 않을 수 없고 또 資源波動과 잇달은 國際景氣의 침체 역시 國際收支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要因으로 登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計劃經濟라는 體制의 硬直性이 東歐諸國 產業의 對外競爭力を 弱化시키고 있다는 點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第11次 計劃의 遂行을 계기로 소련內에서 生產性的 向上이 중요한 課題의 하나로 登場하고 있으며 「헝가리」, 「체코」 및 「불가리아」 등 비교적 市場指向的 社會主義諸國은 市

場의 役割을 보다 擴大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政府의 관료주의적 市場介入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한 예로 價格決定에 있어서 신축성의 부여 및 分散化가 推進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市場의 需給과 곤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換率의 設定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結論的으로 計劃經濟體制를 擇하고 있는 限 社會主義諸國이 市場「메카니즘」을 도입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고 보며 結局 計劃의 性格 및 遂行에 보다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側面에서 市場의 役割을 살릴 수 있도록 解決의 方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小川和男

1981 「不振にあえぐソ連經濟——その要因と改善策」, 『世界週報』3月 3日, 3月 10日
3月 17日字: 國際經濟研究院, 『共產圈 經濟動向』(1981年 5月號)에 요약, 번역
Bachurin, A.

1969 "The Economic Reform," *Problems of Economics*, Vol. 11, No. 12:11-25.
Brown, A.A. and P. Marer

1973 "Foreign Trade in the East European Reforms," in *Plan and Market*, ed.
by M. Bornstein, Yale University Press.

Gamarnikow, M.

1968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Holzman, F.D.

1974 *Foreign Trade under Central Planning*,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International Trade under Communism*, New York, Basic Books.

Kaplan, N.

1968 "Retardation in Soviet Growth of Economic Studies", in
Kairr, M.C. (ed.)

1968 *Economic Development for Eastern Europe*, Macmillan.

Ljubo, S.

1969 *Economic Revolution in Eastern Europe*, Praeger.

Pickersgill, G.M. & J.E.

1974 *Contemporary Economic Systems*, Prentice-Hall.

Quigley, J.

1974 *The Soviet Foreign Trade Monopoly*, Ohio State University Press.

Shaffer, H.

1970 "Varieties of Economic Management in East Europe," *East Europe* Vol. 19,
Nos 2 and 3.

Starr, F.L.

1974 *East-West Business Transactions*, New York, Praeger.

Thornton, J.

1970 "Value Added and Factor Productivity in Soviet Industry," *American Economic Review*, LX, 55, No. 5.

1971 "Differential Capital Changes and Resource Allocation in Soviet Indust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9, No. 3.

UN

Energy Supplies 1950~74.

Energy Supplies 1973~78.

Vajda, I. and M. Simai

1971 *Foreign Trade in a Planned Economy*, Cambridge.

Wilczynski, J.

1969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East-West Trade*, Macmillan.

1972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 Macmillan.

1972 *Profit, Risk and Incentives under Socialist Economic Planning*, Macmillan.

Zinam, O.

1969 "The Economics of Command Economics", in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ed. by Prybyla, Appleton-Century-Crofts.